

화령전의 제례의식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¹⁾

김동욱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조옥연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박사수료)

정춘환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박사과정)

주제어: 화령전, 조선의 영전, 제례의식, 어진, 봉심

1. 머리글

이 글은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御眞을 모시고 제례를 올리던 華寧殿의 건축특성에 관해 고찰하려는 것이다. 화령전은 정조의 단일 어진을 모신 조선 후기 영전으로, 제례와 관련한 여러 절차와 의식이 어떻게 행해졌으며, 이로 인한 건물의 배치와 평면 구성이 어떻게 상호 관련했는지를 살펴려한다.

조선시대 제례는 주로 先祖의 神主, 즉 位牌를 모시고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影幀을 모시고 치르기도 하였다. 신주나 영정, 어느 것을 모시더라도 선조를 추모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 대상이 위패인지 초상화인지의 경우에 따라, 제례 방식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었다. 또한 그것은 건물의 구성 방식에도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계층에까지 影幀을 모시는 사례가 확산되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영정을 모시는 건물의 건축적 眞髓를 보여준 것은 역시,

왕의 어진을 모신 영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증보문헌비고』, 「影殿」조를 살펴보면 모두 11동의 영전이 기록 되어 있다. 이를 열거하면, 조선을 개창한 태조의 영전인 전주 慶基殿이나 함흥 濬源殿을 비롯하여, 궁궐 내에 있는 璿源殿, 도성 남쪽의 永禧殿이 대표전각이며 화령전 역시 중요한 영전으로 언급 되고 있다.

영전은 신주를 모신 사당과는 달리 건축형식이 단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영정에 습기가 배지 않도록, 수시로 실내에 온기를 공급해야 했고, 영정이 낡아서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실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두고 교체 작업을 해야 했다. 또한 집을 수리하는 때를 대비해, 영정을 임시로 옮기는 移安廳도 마련해야 했다. 영전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건물로는 창덕궁의 신선원전과 전주의 경기전, 그리고 수원외 화령전이 있다. 이들 건물은 같은 영전이라도 건물의 구성이나 형태가 동일하지 않아서 영전 건물이 일정한 형식과 개념으로 조영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교에 관련된 건물은 그 형태가 단

¹⁾ 본 연구는 2003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연구소 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조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영전건축에서의 다양한 형태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유교 건축에 대해 가져왔던 그간의 견해가 일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수원 화령전의 경우, 전체 외관은 제례 시설이 갖는 단정함과 엄격함을 기조로 계획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건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정을 모신 정전의 실내 구성은 일반 사당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평면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전의 건축형식을 파악함으로써 조선 시대 건축이 갖고 있던 다양성에 한걸음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화령전의 건축형식을 고찰하려는 이 글도 이러한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화령전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인 건물 연혁과 조선시대 영전 건물에서, 화령전이 차지하는 의의에 대한 개략적인 고찰이 있었다.²⁾ 기존 연구에 의하면 화령전은 조선시대 영전 건물 중에서도, 잘 갖추어진 건축형태가 창건 당시 그대로,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즉, 이 건물은 19세기 초, 영전 건물의 표준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특히 정전 건물은 복도각³⁾을 통해, 이안청으로 통하도록 하는 등, 흥미로운 구성을 한 건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화령전 정전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특징은, 殿內에서 거행되었던 제례와 관련한 여러 절차와 의식이 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진에 습기가 배지 않도록 하는 고려나 넓은 어진을 교체하는 작업, 이안하는 절차, 그리고 왕이나 수원부사가 치르는 전배의식 등이 모두 이 건물의 건축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화령전 정전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몇몇 건축적 과제가 남아있다. 그 하나가, 실내전체를 마루로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단에는 온돌 아궁이 시설이 있으며, 실내 기둥에는 과거

에 증방을 끼웠던 흔적들이 남아있고, 영정을 모시고 있는 내합 부분도 후대에 개조된 흔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들은 화령전 정전이 이후, 어느 시점엔가 개조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화령전의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전내에서 거행되었던 여러 제례 의식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일부 변형된 부분에 대한 복원 고찰을 통해 화령전의 본래 모습을 추정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화령전 건물이 갖는 건축적 의의를 논하려 한다.

2. 화령전의 연혁

정조는 1800년 6월에 崩御하였다. 묘소는 부친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현릉원 곁에 모셔졌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801년(순조 원년) 1월의 실록기사에는 “정종대왕의 화성부 영전의 전호를 화령전으로 의논하여 정하고 계하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⁴⁾ 다시 3개월이 지난 4월에는 “화령전이 완성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정종대왕의 크고 작은 영정 2분을 화령전에 봉안하였는데, 큰 것은 펴서 봉안하였고 작은 것은 껍데기에 봉안하였다.”는 기사가 나타난다.⁵⁾

화령전은 화성행궁에서 70-80보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당시 왕의 사후에 왕 한 사람을 위한 별도의 영전을 짓는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다. 더욱이 그것을 지방 도시에 세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는 정조 재위 시, 수원을 새로 옮겨 화성부를 건설하고, 그곳에 거대한 성곽을 축조한 업적을 고려한 예외적인 조치였던 셈이다.

화령전이 완공되고 3년 만인 1804년(순조4)8월에 순조의 수원 행차가 이루어졌고 부친의 묘소에 참배한 후, 곧이어 화령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거행하였다. 이날 이후, 순조는 재위 34년간 아홉 차례에 걸쳐 화령전에 전배하였다. 이때로부터 대개의 임금들은 재위기간 중, 한 두 번은 화령전 전배를 거행하였다. 이렇게 임금이 직접 화령전에 나아가 친제를 드리는 행사는 1870년(고종7)까지

2) 「경기도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화령전의 연혁과 건물배치」, 경기도, 1995 및 김동욱, 「화령전의 건축특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화성학연구」, 제1호, 2004. 2

3) 「화령전 옹행절목」에 複道閣 白紋地衣一浮 등, ‘복도각’ 용어가 나오고 있고, 「영희전 영건 도감의례」의 永禧殿圖에 정전과 이안청을 잇는 행각을 ‘복도각’이라 명칭하고 있다.

4) 「순조실록」 권2 순조1년 1월 계미: 賓廳議之正宗大王 華城府影殿殿號以華寧啓下

5) 「순조실록」 권2 순조1년 4월 을해, 및 동 권3 순조1년 5월 정축

이어졌다. 이 동안 화령전은 수원부유수의 책임 아래 수시로 어진의 상태를 점검하고 건물을 수리하도록 행해졌다. 특히 왕의 친제가 있을 때에는 행사에 앞서 건물 구석구석을 세심한 점검과 함께 훼손된 부분에 대한 손질이 가해졌다. 고종 7년의 실록에 의하면 곧 있을 친제에 대비해서 건물을 改修하였는데 이 때, 어진을 이안청에 임시로 옮겨 모셨다는 기사가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개수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개수공사가 2월에 이루어졌고 왕이 3월에 화령전 親祭를 거행했다는 기사로 미루어, 남은 부분을 교체하는 정도였고 건물 본래 형태를 변경하는 공사는 아니었다고 짐작된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수리 기사를 제외한다면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 화령전의 건물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화령전은 이 시기까지 처음 지어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은 수시로 관찰을 거듭하면서 각별히 보살피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화령전 건물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1872년(고종9)이었다. 『승정원일기』 고종9년 5월 9일 기사에는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영희전 작헌례에 입시할 때 본전의 전 내와 화령전의 전 내의 온돌을 고쳐 대청으로 만들라고 이미 전교를 받들었습니다.6)”는 대목에 이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6월 2일로 정하라는 전교가 실려 있다.

도성 남쪽에 있던 영전인 영희전의 온돌바닥을 대청으로 고치는 동시에 화령전의 온돌바닥도 대청으로 고치도록 하는 명이 내려진 것이다. 이 기사를 통해서 본래 온돌 바닥으로 되어 있던 화령전 정전의 바닥이 현재와 같이 전면 마루 바닥으로 고쳐진 시기는 고종 9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5월 14일에는 “경기전과 선원전을 영희전의 예에 따라 온돌을 고쳐 대청으로 만들라. 이안, 환안, 고유의 절차는 각각 해당 도신에게 편리한 대로 거행하도록 하라고 분부하라”는 왕의 전교가 보인다. 화령전에 이어 전주의 경기전과 창덕궁 내의 선원전의 바닥도 모두 온돌을 마루로 고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선원전의 온돌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같은 해 7월3일의 기사에 “본래 石榻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불이 붙었을 때에도 염려가 없다고 하였다. 온돌을 고쳐 대청으로 만드는 일을 중지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7) 이날의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여러 영전의 전내를 온돌에서 대청으로 고치라는 고종의 전교는, 화재로 인해 귀중한 어진이 소실될 것을 염려한 조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화령전은 고종9년, 온돌을 대청으로 고친 것 외에, 더 이상의 개조공사는 없었던 것 같고, 이후에도 화령전은 수원유수의 주관으로 정기적인 제례가 거행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었다. 고종임금은 황제로 칭하게 되었고 더불어 정조의 묘호도 ‘정조선황제’로 변경되었다. 1900년이 되었을 때, 고종이 친히 쓴 어진표제를 단, 정조의 어진을 예조의 관리가 화령전에 새로이 모셨다는 기사가 보인다.8) 다만 이 때 어진을 새로 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후 일본은 을사조약을 체결 하였고, 통감부를 설치, 내정간섭을 시작하였다. 1907년(순종1)에 이르러서는 제사 제도까지 개정되는 국면을 맞게 된다. 화령전에 모셨던 정조 어진은 선원전으로 옮겨졌고 전각은 국유로 넘긴다는 칙령 발표가 나왔다. 당시, 화령전 뿐 아니라 영희전, 목청전 등에 모셨던 다른 어진들도 모두 선원전으로 옮기도록 조치되었다. 이 칙령에 따라 이듬해 1908년 9월에는 화령전에 모셨던 어진이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화령전은 주인 잃은 건물로 남게 되었다.

이후에 화령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졌으며 건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실한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1949년 12월 11일자 「동아일보」에는 화령전에 戰災民과 무당이 거처하여 황폐되어 있던 것을 신평동 구장 등이 시청과 화성군의 경비 지원을 받아 수리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다만, 당시의 수리가 어느 범위에 미쳤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이후, 신평초등학교

7) 『승정원일기』 고종 9년 7월 3일: 瑤源殿 依永禧殿例 改堦爲廳事 有所下教矣 今見北伯狀啓 則本所石榻造成 點火之際 萬無△慮云 改堦爲廳之節 置之事 自禮曹行會

8) 고종 37년 10월 18일 『승정원일기』에는 “장례원 소경 오전근을 불러다 만나보았다. 정조 선황제의 어진을 화령전에 모신 후 다녀온 보고를 하였던 것이다.”는 기사가 보인다.

6) 永禧殿酌獻禮入侍時 本殿殿內 華寧殿殿內改堦爲廳事 既承下教矣

교와 화령전 사이에 도로가 나면서 남측 담장과 제기고, 전사청 등이 철거되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화령전은 1960년, 사적 제115호로 지정되었으며, 70년대 후반에 와서 수원 성곽이 정부 지원으로 대대적인 복원공사를 하면서 담장을 비롯한 주요 전각의 부분적인 수리가 이루어졌다.⁹⁾

3. 화령전의 제례의식과 건물구성

화령전의 제례는 정기적으로 수원유수가 헌관이 되어 제향을 거행했고 특별한 때, 왕이 수원에 와서 치르는 친제가 있었다. 화령전의 제례 자체는 신위를 모시고 치르는 일반적인 제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지만, 향을 사르고 술잔을 바치기에 앞서 어진을 살펴보는 奉審 절차가 따르는 것이 일반 사당의 제례와 달랐다. 따라서 화령전 제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어진의 상태를 살피고 우러러 보는 봉심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화령전이 갖는 특징은 어진을 어떻게 모시고 관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령전에서 치렀던 제례 절차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화령전의 제향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정조의 탄신일에 치르는 제향으로 매년 9월 20일 전후였다.¹⁰⁾ 또 한 번은 남향일, 즉 동지를 지나서 첫 번째 맞는 戊일에 치르는 제향이었다. 정기적인 제향의 헌관은 수원유수가 맡았으나 정기적인 제향보다 더 중요한 제례는 왕이 직접 수원에 와서 치르는 친제였다. 친제가 있는 때는 적지 않은 신하들이 함께 제향에 참여했으며, 이 때는 작헌례에 앞서 어진을 우러러 살펴보는 봉심의식이 곁들여 졌다.

제향의 절차는 비교적 기록이 충실한 1870년(고종7)의 친제를 살펴보면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이 해의 제향은 3월 13일에 大院君과 興仁君이 대동된 행사였으며, 고종이 친임한 마지막 화령전 전배이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작헌례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大駕가 건릉과 현릉원에 나아가 친제하고 이어 화령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친히 행하였다.

1. 왕이 행궁에 임어 하였다.
2. 통례가 막차에서 나오기를 계청하니, 왕이 곤룡포로 갈아입고 나왔다.
3. 왕이 여에 타고 홍전문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망전위(望殿位)까지 걸어서 나아갔다.
4. 왕이 사배례를 행하고 殿 안에 나아가 어진을 봉심하였다. 각신들에게 어진을 펼쳐서 걸게 하고 각각 대원군을 맞이하고 홍인군을 입시케 하였다. 모두 어진을 우러러보도록 명하고 잠시 어진과 어진의 봉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5. 잠시 후, 왕이 齋殿으로 나갔다.
6. 작헌례 때가 되자 상이 막차에서 나왔다.
7. 찬례가 왕을 인도해 판위로 나갔다. 왕이 사배례를 행하고
8. 東階로 올라가 殿 내로 들어가 신위 앞에 섰다. 무릎을 꿇고 향과 노를 받들고 향을 들어 세 번 올렸다. 술잔을 받아 입시한 도승지에게 넘겨주며 올리기를 명하니 도승지가 案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세 번을 행하자 축문을 담당한 대축이 축문을 읽었다.
9. 찬례가 왕을 인도해 망료위로 나아가 망료를 행하고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다.
10. 왕이 사배례를 행하고 다시 재전으로 들어갔다.
11. 잠시 후 막차에서 나와, 걸어서 문밖으로 나아갔다.
12. 여에 타고 신평루를 거쳐 행궁에 임어하였다.

위의 작헌례 절차를 살펴보면, 종묘에서 치르는 통상적인 작헌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종묘 친제에서도 왕은 판위에 나아가 4배하고 막차에 머물다가 다시 나와서 4배하고 각 신위에 향을 세 번 올리고 작헌을 하고 축문을 읽은 후에는 축문을 사르는 망료를 치르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제례 절차의 정해진 순서였다. 다만, 화령전에서는 작헌례를 이행하기 전, 어진을 봉심하는 절차가 들어있는 것이 달랐다.

고종의 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령전에서 어진을 살피고 점검하는 봉심절차는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당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 또한 화령전에서는 정기적으로 어진의 상

⁹⁾ 1970년 이후 수리 기사는 「경기도 건조물 문화재실측조사 보고서」(경기도, 1995)에 자세한 내용이 있음

¹⁰⁾ 정조는 1752(영조28년) 9월 22일 탄생하였다.

태를 점검하는 봉심 의식이 있었으며, 어진을 관리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배풀어졌다. 이를 위해, 어진의 봉심 과 제례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정해놓은 『화령전응행절목』이, 책자로 만들어졌다. 이 책은 어진의 봉안과 제례절차뿐만 아니라, 화령전의 건물구성이 어진 봉안과 제례라는 목적을 위해, 어떤 특징을 갖고 지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순조실록』에 따르면 1804년(순조4) 6월 “내각(규장각)에 명하여 화령전에 응당 행해야 할 절목을 개정하게 하였다.”는 대목이 보인다. 화령전을 처음 지을 때, 조례가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영희전, 장령전의 의식을 상고하여 절목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원본가운데서 번잡한 글을 줄이고 조건을 첨가해 넣어 항구적인 의식으로 만들기를 요청한, 수원유수의 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절목은 처음 화령전이 지어질 때 만들어졌고 다시 3년이 지나서 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누가 언제 지었는지 명시되지 않은 『화령전응행절목』이라는 동일한 필사본이 전하고 있다.¹¹⁾ 내용으로 미루어 이 책자는 순조4년 작성되었던 응행절목의 사본으로 판단된다.

『화령전응행절목』의 내용은 크게 「節目」과 「祭品」, 「祭器」, 「鋪陳諸具」, 「禁火諸具」 및 「外具典守秩」로 이루어져 있다. 「절목」은 화령전의 어진 관리 및 제향절차, 건물 관리수칙 등이 규정된 부분으로 화령전의 제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품」은 건물 내에 설치하는 제례용의 시설을 말하며 「제기」는 제례용 기물, 「포진제구」는 제례가 치러질 때, 각 건물 안팎에 설치하는 깔개나 차양을 명시한 부분인데 여기에 화령전의 각 건물명이 명시되어 있다. 「금화제구」는 평상시 건물 화재에 대비한 진화장비, 「외구전수질」은 나머지 자질구레한 물품 등을 정한 것이다.

우선 「절목」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절목」은 모두 5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에 따라 각 항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제1항- 제12항 어진 봉심
제13항- 제15항 이안 절차
제16항 - 제36항 제향
제37항-제56항 평상시 관리
이며 마지막 제57항은 빠진 부분은 추후에 수록한다는 단서 조항이다.

어진의 봉심을 다룬 제1항에서 12항 사이의 주요한 내용을 열거하면,

-어진은 大本은 펴서 모시고 小本은 말아서 상자에 넣어 모실 것.¹²⁾

-대본은 펴서 모시므로 (대본을)모시는 상자와 소본 상자는 함께 龍床 위에 둘 것.¹³⁾

을 정하고 봉심에 대해서는 -대봉심은 4 孟朔 15일에 留守가 행하고 봉심은 매5일 마다 행하며, 봉심할 때는 분향하여 전내에 (항이) 잘 스며들도록 할 것을 적었다. 봉심이나 제향하는 날, 비나 눈이 오면 집사는 神門 안에서만 행례하여 젖거나 습기가 배는 잘못을 피하도록 하고, 봉심날 일기가 청명하지 않으면 殿上 正門은 열지 말고 內閣에서만 봉심하도록 할 것.¹⁴⁾ 등이 언급되었다.

이 규정을 보면, 평상시 어진은 대본을 펴서 걸어두고 작은 것은 상자에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기가 청명하지 않으면 전상 정문은 열지 말고 내함만 봉심한다는 대목에서 정전 안에 따로 내함이 있어서 이 안에 어진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내함은 실내에 설치한 간단한 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화령전이 처음 지어질 당시, 평소 검소함을 숭상한 정조의 뜻을 받들어 唐家를 설치하지 않고 창덕궁 내 주합루의 예에 따라 閤子로 설치했다는 순조실록 기사¹⁵⁾와 일치한다.

다음 항에는 이안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안은 위중하므로 각 陵殿 예에 의거해서 正間 修改 시에 이안할 것.

-이안시에 쓸 粉唐紙는 內閣에서 마련해서 보내 되 미리 대본 상자에 넣어두고 오래되거든 守僕이

12) 御眞大本則展奉 小本則捲奉于櫃子 爲白齋

13) 大本既展奉所奉櫃子與 小本櫃同奉于龍床上 爲白齋

14) 奉審及祭享時 如值雨雪 諸執事就神門內行禮 俾免濕失儀 爲白諸.

奉審日 如不晴明 則殿上正門勿開 而只內閣奉審 爲白劑. 每五日奉審 亦爲焚香以爲殿內薰習之地 爲白齋

15) 『순조실록』 권2 순조1년 2월 병진: 殿內排設 不設唐家前說閤子一依宙合樓例似好

11) 규장각본은 1책 21장 편자미상, 간년미상으로 되어 있으며(규 3240, 마이크로 필름번호 M/F83-16-6-Q), 국립중앙도서관본은 역시 같은 분량으로 편자, 간기미상이다 (도서번호 한-29-110)

내각에 고해서 改備하도록 할 것.

-건물 안팎이 기운 것이 있으면 本府에서 禮曹에 알려 날짜를 골라 거행하되 규모가 작은 공사는 유수와 判官이 감독하고 큰 공사는 閣臣이 유수와 함께 감독하되 이안과 환안할 때 각 差備官은 부근 수령이나 감목관, 찰방, 경내 前卿時任 文蔭武를 결원이 생기는데 따라 형편을 보아 보충하도록 하고 차비관의 직책과 이름을 적어서 狀聞할 것. 을 정하고 있다. 陵殿이란 능에 딸린 정자각이나 재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正間은 화령전 정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고칠 때에 한해서 이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안시에 분당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이 종이는 따로 내각이 마련하도록 하였다. 분당지는 중국에서 나는 종이로, 빛이 희고 얇으며 榜紙라고도 불리는 것이며, 내각은 규장각을 가리킨다.¹⁶⁾

다음은 제향에 관련된 것으로 모두 21 개 향이 정해져 있는데, -제향은 매년 탄신일과 臘日 두 차례 시행하고, 修改時에는 告由, 移安, 還安祭를 거행할 것.¹⁷⁾ 을 정하고, 祭品은 봉상시가 마련하고, 제향 시 헌관은 유수가 맡으며, 그 밖에도 제향의 세부 절차에 대해 殿司, 典祝官, 大祝, 贊者와 謁者 등도 각각 누가 맡을 지를 상세히 정해 놓고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장령전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 또 제향 시 내합에는 絳紗帳과 甲紗帳을 설치하고 祭床에는 채화로 장식할 것으로 정하고, 이어서 특별히 왕이 직접 제향 할 때에 대하여 - 친림 전배 시는 殿內外 및 齋所 수리를 호조가 전담 거행할 것. 을 명시하였다.

그 뒤를 이은 37항부터 56항까지는 건물 관리와 관련한 여러 사항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건물과 관련한 것만을 열거하면, -봉안각 헌판과 어제헌판 3좌를 넣은 상자와 樽所床, 진축상, 硯匣, 補簷遮日, 東西中門帳과 기둥 내외의 포진 장비는 좌우 익실에 상시 별도로 둘 것.

-전내 온돌은 5일 1차 봉심 시 점화하고 점화목은 매년 1단식 분사에서 지급할 것.¹⁸⁾

-검수문장의 직소 장소는 어재실 서온돌로 하고

평상시에도 점화하도록 할 것.¹⁹⁾ 을 정하고 있다.

응행절목의 두 번째 항목인 「제품」에서는 제향에 사용할 각종 그릇 종류와 숫자가 명시되고, 주요 건물에 설치하는 시설이 나열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정전 용상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상 위에 萬花甲席 1건, 金縷緞褥席 1건, 갑사장 1건, 감사장 1건, 대향낭 4건, 보검 1쌍, 오병대병풍 1좌를 마련해 둔다고 하였다. 또 이안청의 경우에는 대평상 1좌와 소평상 1좌를 두고 각 평상 위에 까는 깔개를 명시하였다.

다음 「제기」에서는 은대접 1좌를 비롯한 57종의 제향 관련 기물이 언급되었는데 이 물건들은 제기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 어정과 관련한 두레박이나 관련 기물이 언급되었다.

다음은 「포진제구」, 즉 각종 깔개류에 대한 항목으로, 화령전의 건물명과 실내 명칭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깔개류 등은 생략하고 건물명과 실내 명칭만을 정리하기로 한다.

正殿 內閣, 大廳, 左右翼室, 前退, 月臺
御路
移安廳 大廳, 前退, 東退,
複道閣
齋室 大廳, 前退, 左右房
香大廳 前退, 左右房
典祀廳 大廳, 前退, 房

이 밖에 출입문으로 內三門, 外三門이 있고 左右夾門이 언급되었으며, 금제구조에는 철드무 4좌가 나와 있다.

화령전에서 치러진 차례의식과 『화령전응행절목』에 나오는 기사들을 통해서 화령전이 조영되었던 19세기 영전 건물의 쓰임과 화령전 건물구성의 개념, 특징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창건 이후 19세기말까지 화령전을 구성했던 건물은 정전과 이안청, 복도각, 그리고 재실, 향대청, 전사청, 제기고 였고, 여기에 외삼문과 내삼문, 그리고 좌우의 협문과 어로, 어정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들 건물 가운데 재실과 향대청, 전사청, 제기고 및 우물은 일반적인 사당 건물과 별

16) 『한국한자어사전』, 권3 및 1권 역

17) 祭享 每年以誕辰臘享二次設行如值 修改時 則告由移還安祭 亦爲設行 爲白祭

18) 殿內溫突 五日一次奉審時點火而 點火木每次一丹式 自分寺上下 爲白齋

19) 兼守門將直所以 御齋室西溫埃許接以 爲常時點火之地 爲白齋

다른 차이점이 없는 평범한 부분이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물론 정전이며, 이안청, 복도각 역시 다른 사당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형의 건물로 손꼽힌다.

정전은 어진을 모신 곳이며 이곳에는 內閣이 있고 그 안에는 용상 위에 크고 작은 어진이 봉안되어 있었다. 또 용상 위에는 보검1쌍과 오봉병 병풍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온돌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온돌은 전적으로 어진의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옹행절목에는 매 5일 마다 온돌에 불을 넣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어진을 봉안한 정전 실내에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음이 확인되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실내에 온돌을 마련하고 일정한 때마다, 불을 넣는다는 것은 이 건물이 갖는 독특함이며 또, 영전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 내에는 좌우 익실이 있어, 봉안각 현판을 비롯한, 제례의식에 사용하는 각종 휘장 등이 보관되었다. 그런데 옹행절목에는 언급되지 않은 익실과 관련한, 또 다른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화령전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강화 장령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이곳 역시 정전 내에 좌우 익실이 있었는데, 어진이 낡아 교체작업을 해야 할 경우, 그 교체를 위한 준비작업이 바로 이 익실에서 이루어졌다. 『속 국조오례의』, 「어진을 장령전에 봉안하는 의식」에 의하면, 어진을 교체할 시기가 되어 새로 그린 어진을 모시고 오면, 우선 장령전 정전, 東翼室에 잠시 보관하였다가, 그 사이에 내합의 어진을 들어내어, 西翼室로 옮긴 후, 이곳에서 세초, 즉 어진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그 뒤 동 익실에 보관한 새 어진을 정전 내합에 건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령전의 경우에도 좌우 익실은 단지 현판이나 휘장을 보관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어진이 오래되어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도록 배려되었던 것이라 짐작된다.

이안청과 이를 연결하는 복도각도 일반 사당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위 절목에 의하면 이안청은 정전을 수리할 때에 한해서 정전에 모신 어진을 이곳에 임시로 봉안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복도각은 정전에서 이

안청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부분으로 보인다. 일부러 통로를 연결하는 복도각을 지은 것은 이안하는 날에 비나 눈이 올 것을 대비한 장치로 생각된다. 영전 건물에서 어진은,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하게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화령전 현황과 원형고찰

4-1. 화령전의 현황

화령전은 현재 경기도 수원시 신평동에 자리 잡고 있다.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신평초등학교 울타리와 접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오른편(남쪽)은 화성행궁이 놓여있다. 화령전은 건물 전체가 행궁과 마찬가지로 동향하고 있으며, 동쪽 끝에 외삼문이 있고 방형에 가까운 울타리가 길게 둘러쳐져 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네모반듯한 마당이 나타나며 그 뒤편 중앙에 내삼문이 있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나타나고 마당 뒤편 중앙에 정전이 자리 잡고 있다. 내삼문에서 정전 사이는 어로가 놓여 있으며, 정전 전면은 3단의 장대석으로 이루어진 월대가 마련되어있고, 월대에는 3개의 계단을 조성해 놓았다. 마당 좌우는 울타리로 막혀 있는데, 울타리 중간 부분에 각각 협문이 있다. 북쪽 협문 바깥에는 재실이 있고, 남쪽 협문 바깥은 본래 향대청과 전사청이 있던 곳으로, 현재는 이들 영역이 복원되고 있다. 위쪽 공터에는 우물이 하나 놓여있다. 북쪽 협문에서 정전 월대의 북쪽 계단 사이는 따로 전돌을 깬 진입로가 조성되고 그 중간에 板位가 마련되어 있다. 제향 시, 현관은 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협문을 통해 정전 마당에 들어서게 되고 진입로를 따라 판위로 나아가 4배를 올리던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정전은 월대 위에 다시 기단을 한 단 두어 그 위에 조영되었는데 정면 5칸, 측면 4칸이고 앞부분의 뒷간은 개방되어 있는 구성이다. 정전은 2고주7량 건물로, 1출목2익공의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시대 사당에서 널리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각 부분의 짜임이나 부재의 상태로 미루어 정전의 전체 규모나 구조를 이루는 기본적인 부재, 창호 등은 창건 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전의 실내는 모두 개방되어 있고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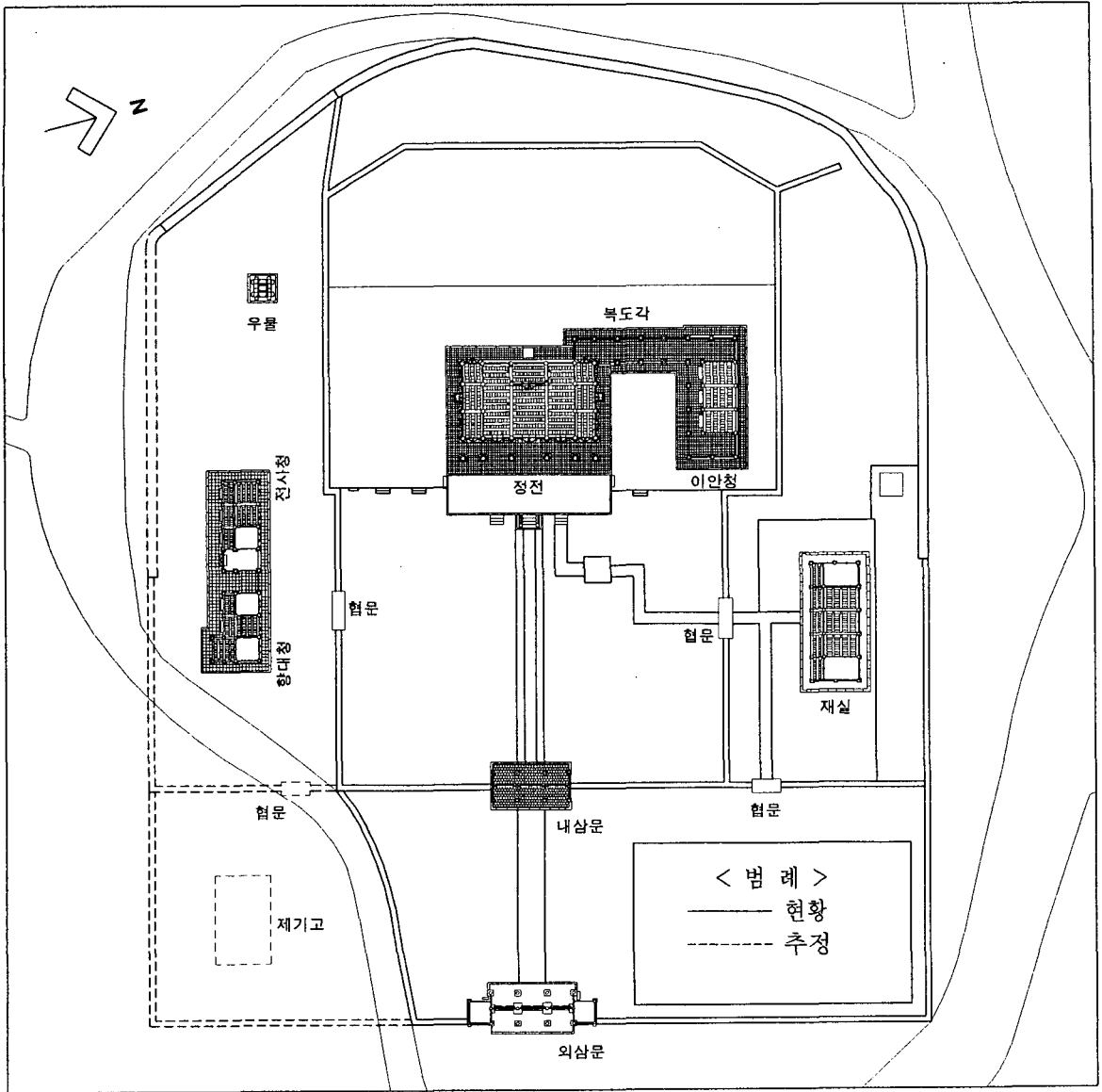


그림 1. 화령전 현황 배치도

실내 좌우에는 각각 3 개의 고주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기둥에는 중방을 끼웠던 흔적이 남아있어, 실내 좌,우측에 본래 익실이 있었음을 짐작케 해 준다.

정전 중앙 뒤편에는 따로 가는 기둥을 세우고 출입문을 단, 1칸 규모의 내합이 놓여 있다. 내합 뒷벽에는 근래에 제작한 정조의 어진이 걸려있다. 내합 바닥은 나무를 가늘게 켜서 일정한 간격으로 빈틈을 만든 마루구조이다. 내합은 전면에 세살분합문이 설치되어있고 위쪽은 낙양이 장식되고 아

래는 초각이 있는 머름으로 되어 있다. 내합 좌우 측면 바닥에는 어느 때인가 건물을 그대로 두고 내합을 전체적으로 다시 끼워놓은 흔적이 남아있다.

정전 기단 상면에는 좌우 측면과 뒷면 중앙에 아궁이 시설이 남아있다. 이 중, 뒷면 아궁이 좌우에는 연기가 빠져 나갈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과거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던 부분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내합이 있는 1칸 부분 마루 아래에는 지금도 온돌을 설치했던 고막이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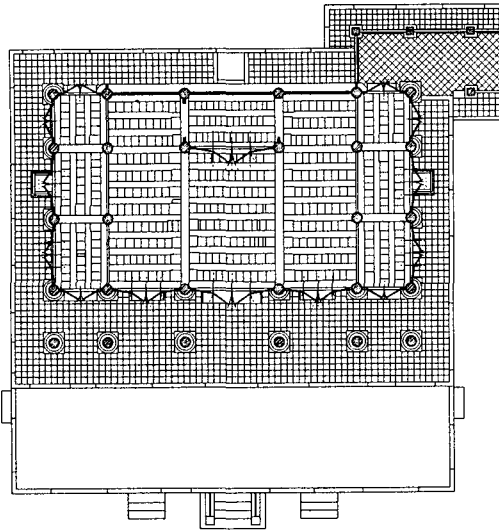


그림 2. 정전 평면도(현황)

(자료: 『경기도건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경기도)

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좌우 측면의 아궁이는 단지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남아있고 불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이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전의 뒤편에는 복도각이 있다. 複道閣은 정전 뒤편 뒷간에서 시작해 4간의 행각이, 移安廳으로 연결된다. 이안청은 남향해 있으며 정면 3간에 측면 1칸반 규모이다. 현재의 이안청은 내부는 모두 개방되어 있고 중앙 3칸 바닥은 마루, 나머지는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 이안청 정면은 과거 창호가 달렸던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화령전은 앞에서 살펴본 19세기의 상황과 기본적인 건물구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화령전 건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전과 이안청 영역은 본래의 모습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정전은 현재 실내에 온돌 시설이 전혀 없으며 좌우의 익실도 사라지고 없다. 또, 이안청에도 건물 구조의 변화는 없지만 창호가 없는 상태이다. 정전 바닥이 전면 마루로 바뀐 것은 1872년(고종9) 온돌을 대청으로 고치도록 한 조처에 기인하며 나머지 개조된 부분은 일제강점기, 어진이 서울로 옮겨지고 건물이 방치되면서 관리가 소홀히 되자, 조금씩 변형된 결과라 생각된다.

4-2. 화령전의 원형고찰

화령전 본래의 모습과 현재 모습이 차이를 드러내는 두드러진 부분을 枚擧하면, 정전의 바닥 부분과 익실구성, 내합의 용상, 이안청의 창호, 그리고 사라진 향대청과 전사청 및 제기고를 들 수 있다. 이제 각 부분의 원형을 고찰해 보자.

우선 정전 바닥부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내 일부는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건물 바닥 구조로 미루어 내합이 있는 중앙 뒤편 1칸에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도 내합 1칸 부분 지면에 고막이 돌이 돌려져있고, 아궁이와 연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익실부분의 경우에는 바닥에 온돌을 설치했을 만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익실은 주로 현판이나 휘장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한다는 유행절목 기사로 미루어, 이 부분은 당초부터 마루로 되어 있다고 보아서 무리가 없다고



그림 3. 벽체 흔적(현황)

- <범례> ① 벽체와 인방재 장부 홈의 흔적
 ② 판장벽 필름 흔적
 ③ 마루 동귀틀

판단된다. 이 경우 좌우 기단에 있는 아궁이는 실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었나 추정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²⁰⁾

실내의 좌우 익실과 가운데 대청 사이에는 칸막

이벽이 존재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보여 진다. 3칸 정전과 양 협칸 사이에는 벽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앞쪽 2칸은 심벽구조이고, 뒤쪽 1칸은 판벽구조로 된 벽체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살펴보면 앞 2칸 내진 기둥 사이에는 중인방 2개가 설치되었던 장부 홈이 남아 있고, 하인방과 상인방에는 일정한 위치에 중것을 꽂았던 홈이 나 있다. 뒤 1칸에는 내진 기둥과 외진 기둥사이에 역시 중인방2개가 설치되었던

장부 홈과 상인방과 하인방에 판벽 널을 수장했던 물홈선이 뚜렷하게 남아있어, 심벽과 판벽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벽 기둥하부에는 도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칸막이벽에 개구부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내합은 온돌에서 마루로 바닥을 고칠 당시, 손을 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재, 측면 바닥에는 후대에 억지로 끼워 넣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부 머름과 상부 낙양, 그리고 분합문의 조각 수법과 맞춘은 주변 공포의 조각이나 부재마감과는 조금 다른 것이고, 머름대가 정면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온돌을 대청으로 고치고 좌탑을 설치하면서 변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단정하기 어렵다. 현 상태에서 내합의 본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를 상고할 자료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화령전의 내합은 주합루 합자의 예에 따라 지어졌다고 하지만 주합루 합자 역시 남아있지 않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화령전 정전 실내의 본래 모습을 다시 정리하면, 내부는 가운데 대청과 좌우 익실이 칸막이벽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대청은 뒤 한 칸에 내합이 자리 잡고 있고 내합의 바닥은 온돌로 되어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내합에는 용상이 놓여있고 용상 위에는 어진 대본이 걸리고 소본이든 상자가 놓이며, 여기에 보검 1쌍과 오봉병풍이 놓여 있는 모습이였다.

다만 내합의 경우 현재의 것이 창건 시와 동일한 형태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한편 이안청은 대청 전면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실내에는 대평상과 소평상이 각각 1좌씩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웅행절목'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화령전의 남쪽 담장은 철거되고 없다. 1960년대에 신평초등학교와 화령전 사이에 도로가 나면서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거고, 향대청, 전사청도 함께 철거되었다. 2002년 향대청과 전사청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여 건물지를 확인, 복원중이며 우물도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였다. 이 부분은 건물이나 담장 위치가 거의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본래 모습을 복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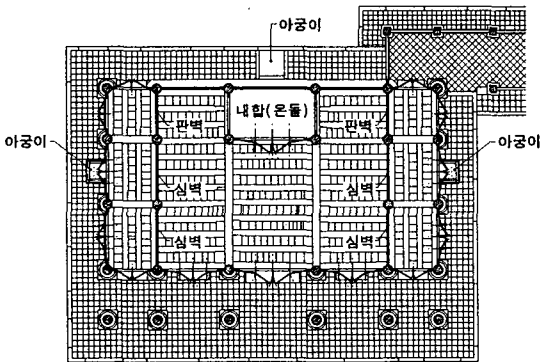


그림 4. 창건시 평면 복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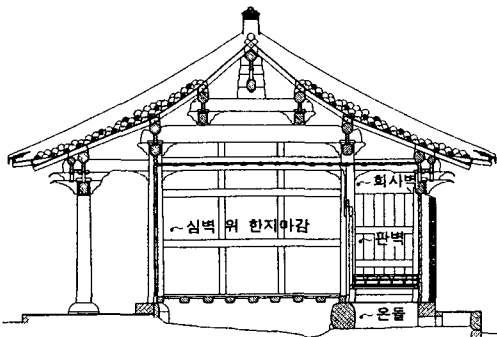


그림 5. 창건 시 종단면 복원(안)

20) 만약 온돌구조였다면 양협칸(翼室) 1칸×3칸에 온돌을 들었을 가능성이 큰데 온돌방에 심벽과 판장벽이 같이 존재하게 되므로 판장벽이 수장되는 칸은 벽을 세워 분리해 1칸×2칸의 온돌을 들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온돌은 기둥 하부에는 하인방이 설치되고 그 밑으로 고막이를 쌓아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현재 배면 고주와 측면 기둥 사이에 하인방을 설치했던 흔적 없이 동귀틀이 직접 설치되어 있고, 마루가 깔려 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아궁이만으로 익실이 난방이 가능한 온돌구조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훈습(熏濕, 연기를 피워 전내를 습기를 제거하는 일)을 목적으로 대청마루 구조에 굴뚝 없이 아궁이만 설치했을 수도 있다.

5. 화령전 건축형태의 특징과 가치

조선시대 영전 건물로, 대체적인 건물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현존 건물은 창덕궁 舊濬源殿과 전주 경기전이 있으며, 그림이나 관련 사료를 통해서도 영희전과 강화 장령전등이 그 대강의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다.²¹⁾ 이들 건물과 화령전을 비교해 볼 때 영전 건물은 동일한 구조나 형태를 취하지 않고, 각 건물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화령전은 영전의 전형을 잘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건축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창덕궁 구선원전은 1689년 창덕궁내에 선원전이 생기면서 역대 어진을 모신 영전으로 쓰이다가 1921년에 창덕궁 후원 안에 새로운 선원전이 건립되면서 빈 건물이 되었다. 구선원전 건물은 본래, 萬壽殿(효종 때 지어진 왕대비전)의 별당건물인 春輝殿으로 창건되었다. 그 후, 만수전이 소실되면서 춘취전 건물을 선원전으로 轉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전 내에 모신 어진은 숙종의 어진이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영조, 정조, 순조, 문조 등의 어진이 봉안되었다.

이 건물은 본래 왕대비의 별당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진을 봉안하는 기능에는 맞지 않았다. 그러나 건물을 크게 고치지 않고 부분적인 개수를 거쳐 선원전으로 활용하였다. 그 후 봉안해야 할 어진이 늘어나자 좌우로 건물을 2칸 증축하고 다시 2칸을 증축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다. 당초부터 영전을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가 영전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여기에는 이안청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건물의 경우, 인근에 다른 부속 건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득이 어진을 이안할 때는 부속건물인 養志堂을 활용하였다. 구선원전은 신선원전이 지어진 이후 방치되었고 내부도 과거 영전으로 쓰일 때의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서 이 건물이 영전으로 쓰일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²¹⁾ 이 밖에 창덕궁신선원전이 있는데, 신선원전은 1921년에 지은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여러 곳에 있던 어진을 한 데 모시기 위해 지었으며 그 건축형태도 조선시대 영전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비교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궁궐지』에 수록된 「선원전중수기」에는 1754년(영조 30년) 건물을 수개할 때 榻影 뒤의 板壁을 뜯어내고 벽 안의 모란병풍을 그대로 문을 만들었다[去榻後板壁而壁內牡丹屏仍爲作牕]는 기사가 보이는데 과연 어떤 구조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고종실록』에는 이 건물의 어진은 石榻 위에 모셔져서 화재의 위험이 없다고 기록되었으나 석탑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 역시 알 길이 없다.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경기전은 1410년(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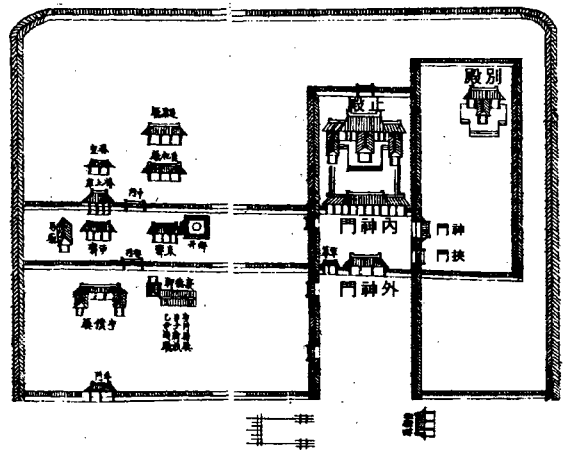


그림 6. 경기전 배치도(자료: 경기전의(慶基殿儀))

종10)에 지어졌으며 여러 차례 개수를 거쳤다. 현재 어진을 모신 정전 건물은 정자각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건물에도 원래는 온돌이 있었으나 고종 9년에 대청으로 고쳤다고 하는데 현재는 바닥이 전돌로 덮여 있어, 그 후에 개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73년(고종 9)에 편찬된 「조경묘경기전대수리등록」에 의하면 이 당시 경기전의 모습과 구성 건물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경기전에는 따로 이안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동쪽에 별도의 담장 안에 별전이 있어서 이안이 필요할 때는 별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희전에 대해서는 건물 수리를 기록한 의궤가 전하고 있다.²²⁾ 영희전은 처음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 김씨의 사당으로 쓰이던 것을 후에 태조와 세조의 어진을 봉안한 영전으로 쓰다가 1690년(숙종 16년)에 영희전으로 고쳤고 다시 건물을 증축한 후, 숙종, 영조, 순조의 어진이 봉안되었다.

²²⁾ 영희전에 관련한 의궤로는 남전중수도감의궤, 남별전 중전청의궤, 영희전중전도감의궤 등이 있다.

1900년에는 경모궁 자리로 이전하였는데²³⁾ 이전할 때의 건물 배치 그림이 전한다. 이 그림에 의하면 정전 뒤에 이안청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당건물의 격식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희전도 당초에는 정전이 온돌로 되어 있었지만 고종 당시 마루로 개수했다고 하나, 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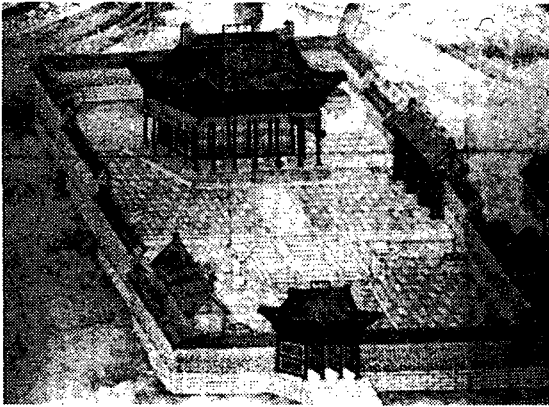


그림 7. 장령전 배치(강화부 궁전도)

에 대해서는 건물이 남아있지 않아 더 이상의 추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장령전은 숙종과 영조 어진을 봉안한 곳으로, 「강화부궁전도」²⁴⁾에 영전건물의 전경 그림이 전하는데, 그 형태는 화령전과 흡사하다. 다만, 장령전에는 이안청을 별도로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⁵⁾ 「속 국조오례의」에는 어진을 교체할 때 장령전 내에 좌우 익실이 있어 이곳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좌우익실을 둔 것은 화령전내부 평면과 유사한 구성으로 보인다.

이처럼 얼마 남아있지 않은 다른 영전 건물이나 그 밖에 다른 영전건물과 관련한 자료 등을 살펴볼 때 조선시대 영전은 지어진 시대에 따라 또는 모시는 어진의 수효나 성격에 따라 그 건축형태가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화령전 정전은 그것이 한 임금의 어진만을 봉안한다는 점에서 전주 경기전과 공통되지만 건물 형태에서,

경기전은 정자각 형태를 취하고 있어 화령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화령전과 건물 형태가 가장 유사한 것은 장령전이지만 장령전은 이안청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구조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국 조선시대 영전은 각각의 건물이 각각의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모습으로 지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 초기에 세워진 경기전이 이후의 영전들과는 다른, 정자각 형태를 하고 있어, 시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고 화령전과 장령전은 건물형태가 서로 유사하지만 주변 여건에 따라 이안청 설치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이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한편 화령전의 건축형태를 살펴보면, 이 건물이 일반적인 사당 건물의 격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동시에 정전과 이안청은 어진을 봉안한다는 독특한 기능에 맞추어 특색 있는 구성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령전은 다른 영전처럼 용도 변경을 거쳐 영전이 된 건물도 아니고 여러 어진을 함께 모셔두는 건물도 아니었다. 정조의 어진 하나만을 모신, 또 영내의 모든 전각들을 동시에 완공한 영전이였다. 따라서 영전이 갖추어야 할 전체적인 완결성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정전은 당대영전들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 온돌을 설치해 어진의 습기를 제거하였고, 정전과 이안청을 연결하는 복도각 역시,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제실과 향대청, 전사청 또한, 제례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를 배치한 방식도 여타 영전들의 전형을 따른 것이다.

전체를 두 겹의 울타리로 구획하고 각기 외삼문과 내삼문을 두어 경계를 명확히 한 점에서는 제례 시설로서의 격식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화령전은 조선후기 제례 시설의 전형을 보여주는 동시에 화령전에서만 볼 수 있는 영전 건물의 특성을 고루 갖춘 건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 맺는 글

고종 7년에 행해졌던 화령전 친제를 통해서 화령전 제례의식의 핵심은 어진을 봉심하고 제향을 치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향 자체는 일반적인 왕실 사당의 제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²³⁾ 장필규, 「북원연구를 통한 영희전의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4

²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으로 제작연도는 미상

²⁵⁾ 장령전의 바로 옆에는 강화 행궁이 있었다. 아마도 어진을 이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어있는 행궁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안청을 두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절을 올리기에 앞서 어진을 우러러 보고 묵상하는 절차는 영전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것이었다. 어진의 봉심은제향 시에 행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닌, 정기적인 행례임은 『화령전응행절목』이 잘 전해주고 있다. 어진에 습기가 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진이 모셔진 내합 아래 온돌시설을 하고 매 5일 마다 불을 넣도록 하였다. 정전 내에는 좌우 협간에 칸막이벽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제례와 관련한 각종 기물을 보관하였고 낡거나 번고가 있는 어진을 교체할 때는 익실에서 준비 하도록 하였다. 건물을 수리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정전 곁에 이안청을 마련해두었고 양쪽건물을 연결하는 복도각을 지어 눈, 비를 대비하였다. 이처럼 화령전은 어진을 모시고 제례를 치른다는 특징에 맞추어 전각들이 구성되고 평면이 짜여졌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화령전은 정전 내부가 '응행절목'의 기록과는 다르게 전면 마루로 되어 있고 좌우 익실의 칸막이벽이 사라진 상태이다. 본론의 고찰을 통해 정전 내부의 온돌이 1872년(고종9), 마루로 바뀌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실내 칸막이벽에 대한 복원 고찰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현존하는 영전 건물인 전주 경기전, 창덕궁 선원전 그리고 건물형태를 부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영희전, 강화 장령전등의 비교를 통해 조선시대 영전이 각기 지어진 때와 건물이 놓이는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화령전은 단일 영정을 모시면서 하나의 영전 건물로써 완결성을 지닌 건물이며, 조선후기 영전 건물의 전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

화령전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어진을 봉안한 내합의 본래 구조가 어떠한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미해결로 남았다. 좌우익실에 칸막이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 출입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해결과제로 남았다.

화령전은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건물의 복원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우물이 제 모습을 되찾았고, 옛 전사청과 향대청 영역의 복원이 마무리되고 있다. 향후, 정전은 온돌을 들이고 양측에 익실을 갖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할 것이다. 이렇게 화령전 영역이 모두 복구되어, 혼신으로 어진을 봉

안하던 조선의 시대정신이 드러난 영전건물과 만나야 할 일이다.

참고문헌

1. 『朝鮮王朝實錄』
2. 『高·純宗實錄』
3. 『日省錄』
4. 『承政院日記』
5. 『國朝五禮儀』
10. 『國朝續五禮儀』
11. 『新增東國輿地勝覽』
12. 『練藜室記述』
13. 『華寧殿應行節目』
14. 『增補文獻備考』
15. 『화령전 전사청지 발굴조사 보고서』, 경기 문화재연구원, 2000
16. 『창덕궁 선원원전 수리보고서』, 문화재청, 2001
17. 『창덕궁 구선원전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2
18. 『경기도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경기도, 1995
19. 이성미, 「조선시대 어진관계 도감의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0. 정해득, 「정조 어진의 도사와 화령전 건립」,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3
21. 장필규, 「복원연구를 통한 영희전의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4
22. 김동욱, 「화령전의 건축특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화성학연구』 제1호, 2004. 2

A Study on the Ritual Ceremony and the Architectural Form of Hwaryeong-Jeon in the Joseon Dynasty

Kim, Dong-uk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Cho, Ok-yon

(Kyonggi University)

Jeong, Chun-hwan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he consideration about Hwaryeong-Jeon that enshrines Joseon Dynasty 22nd king Jeongjo's portrait of a king.

Suwon's Hwaryeong-Jeon that accompanied a portrait and performed ritual ceremonies had several formalities and ceremonies which are connected with rituals. therefore, we will try to examine what relation between arrangement of building and plane composition had. And through this, it is thing to observe construction special quality that Hwaryeong-Jeon has.

Joseon Dynasty's young-jeon (a hall where the royal portraits are kept) is retaining each other different state according to construction age every moment. Hwaryeong-Jeon among Joseon Dynasty's a hall of royal portraits is the construction form which is equiped well and is known for keeping the form well from the foundation to now And this building is evaluated as the standard form of early part young-jeon building of 19th century.

Especially, Hwaryeong-Jeon shows the typical ritual equipments late Joseon Dynasty and at the same time has all kinds of characteristics which only we can find at Hwaryeong-Jeon . Namely, Hwaryeong-Jeon is the building which brings the design concept of the hall of royal portraits to completion as the building which enshrines single portrait of a king.

After all, Hwaryeong-Jeon is evaluated as the building which can pass excellent form of late Joseon Dynasty, the hall of royal portraits building just as it is. Therefore, as I study its own style, I expect Joseon Dynasty's mind that enshrined the portrait of a king elaborately to be revealed.

Keyword : Hwaryeong-Jeon, A hall of the royal portraits, ritual ceremony, King of portrait, take care of portraits and building